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미국, 지난해 3자 물류시장 규모 1위 차지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DP World, 물류 스타트업 기업 위한 플랫폼 출시
2. WTO, 올해 세계 교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3. Traxens, 스마트 컨테이너 데이터 교환 위한 표준 개발 주도
4. 핀란드 항만, 선박 자동 계류 시스템 추가 발주
5. 동남아 피더선사 익스프레스, 트레이드렌즈 합류 의사 밝혀

명사 스피치

“물류는 마치 ‘흐르는 물(水)’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막힘없이 흘러야하며, 어디서부터 출발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흐르는 목적은 무엇인지 등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선경 아워홈 물류센터 팀장
(2019. 10. 13. / 매일일보 인터뷰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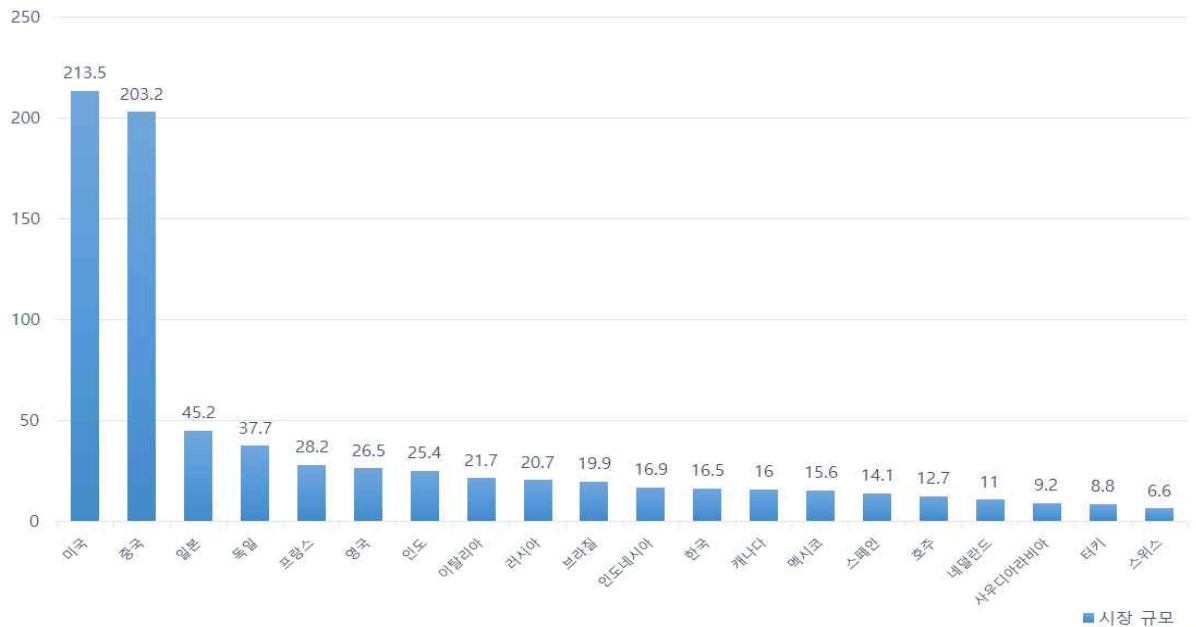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미국, 지난해 3자 물류시장 규모 1위 차지

2018년 3자 물류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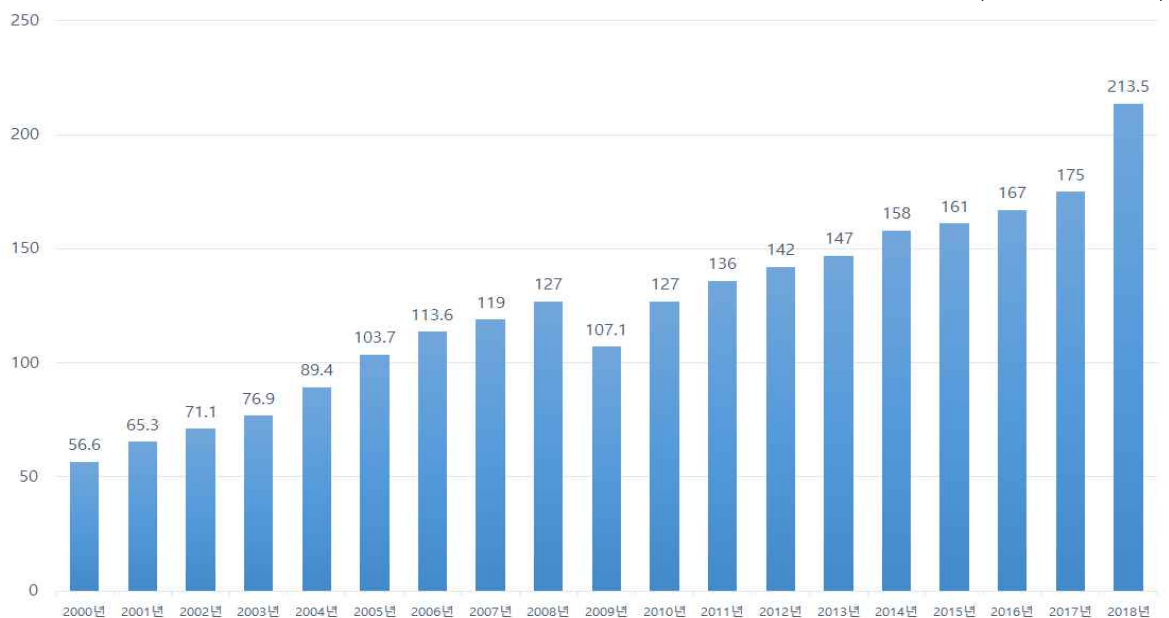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www.statista.com

2010~2018년 미국 3자 물류 시장 규모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www.statista.com





- 2018년 3자 물류시장 규모에서 미국이 2천 135억 달러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음
- 중국은 2천 32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과 큰 격차가 나지 않음
- 3위인 일본부터는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16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12위를 차지함
- 1위인 미국의 3자 물류시장 규모는 2000년 대비 2018년에 3.8배 가량 증가했음

■ 참고자료 : www.statista.com

류진아 연구원

051-797-4788, jaryu@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DP World, 물류 스타트업 기업 위한 플랫폼 출시

- 글로벌 항만 운영사인 DP World가 물류분야 기술 창업기회자(accelerator)용 플랫폼인 Log-X를 출시함
 - 지난 1월 DP World는 인도의 항만, 터미널, 교통 및 물류 사업에 최대 3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인도 국부펀드인 NIIF(National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Fund)와 제휴해 투자 플랫폼의 창설을 발표한 바 있음
 - Log-X는 인도의 물류부문 혁신 및 기술 채택 장려를 위해 인베스트 인디아(Invest India), 케랄라 스타트업 미션(Kerala Start-Up Mission)과 창업기회자 파트너인 스타트업 레세우(Startup Réseau)가 제휴함
- Log-X 창업기회자용 프로그램은 DP World와 인베스트 인디아, 케랄라 스타트업 미션 간의 독특한 협력을 통해 인도 물류부문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친 혁신을 장려함
 - DP World는 인도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와 공급망 중심의 혁신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의 창설 장려를 원하고 있음
 - 해당 프로그램은 인도의 물류 중심 기술 스타트업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틱스, 시뮬레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 Log-X는 인도 스타트업(Startup India) 포털을 통해 최대 10개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여 협력, 전략적 계약 및 개념증명 개발이라는 장기 목표를 가질 계획임
- 물류부문 기술 채택(adoption)이 강화되면 공급망 투명성, 신뢰성 및 예측성도 향상될 것이며 인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한 DP World 아대륙(subcontinent) 임원은 '기술 채택(technology adoption)'과 '혁신(innovation)'은 화주들을 위한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물류 플랫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참고자료 : www.livemint.com, 2019.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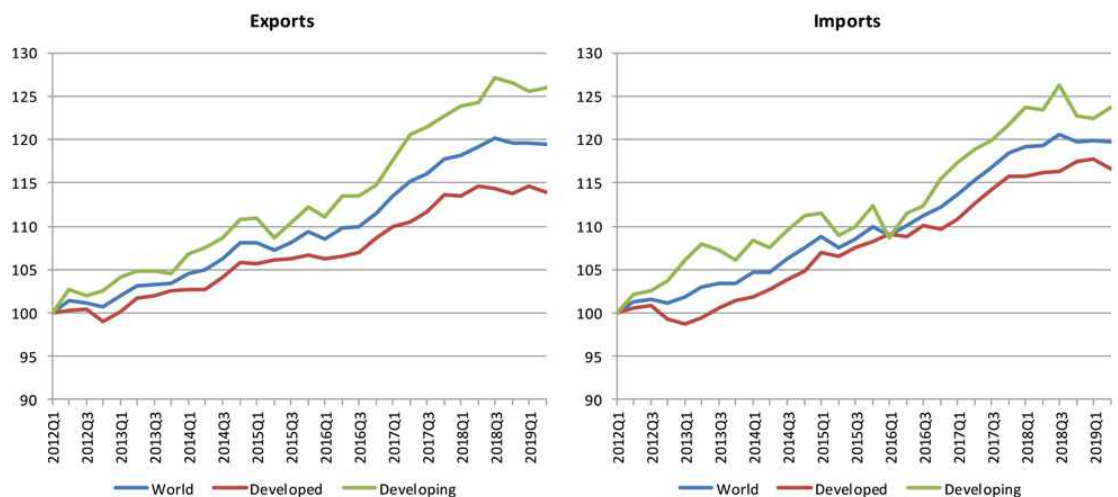
신정훈 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WTO, 올해 세계 교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긴장 고조 및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상품 교역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함
 - 10월 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 상품 교역 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 제시한 2.6%에서 1.2%로 1.4%p나 대폭 낮춤
 - 세계무역기구는 올해의 예측에는 상당한 변동성이 존재할 것이며, 하방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 무역분쟁이 고조되면 교역 성장률은 0.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무역분쟁이 해소되면 1.6%를 초과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세계 상품 수출입 추이의 둔화 및 신규수출주문지수 등이 교역 성장률 하향 조정을 뒷받침해 줌
- 올해 상품 교역량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급격한 둔화 추세를 보임
 - 금년 상반기 세계 상품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으나 최근 몇 년 전에 비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음
 - 수출은 선진국이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반면, 개도국은 1.3% 증가함
 - 수입은 선진국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으나 개도국은 0.4%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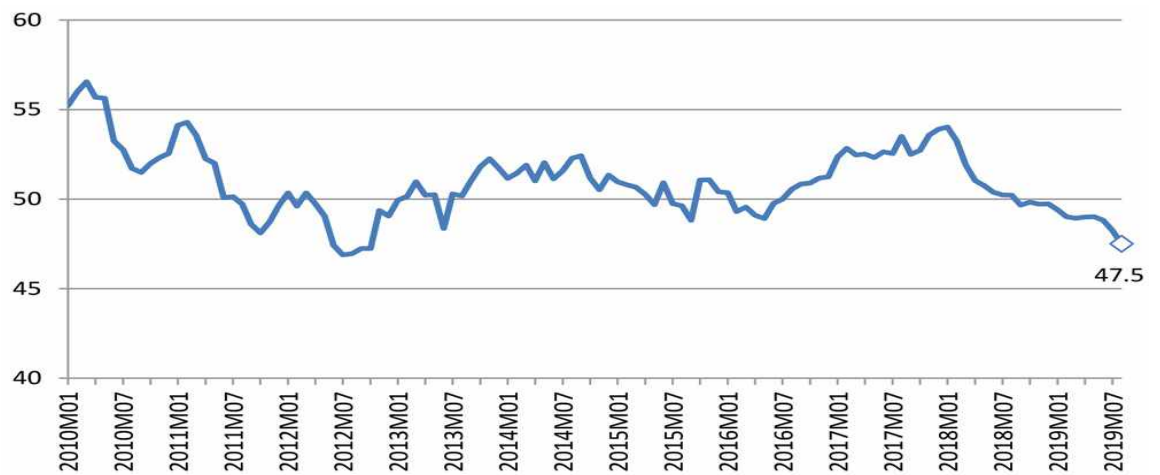
경제 개발 수준별 세계 상품 수출입 추이



- 신규수출주문지수는 2018년 7월 이후부터 수축기에 진입함
 -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에서 파생된 신규수출주문지수는 향후 수출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지표로 50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면 경기확장, 하회하면 경기수축을 뜻함
 - 신규수출주문지수가 2018년 1월 54.0에서 2019년 8월 47.5로 떨어졌으며,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글로벌 PMI 신규수출주문지수 추이



참고자료 : www.wto.org / www.maritime-executive.com 2019.10.13.

김성아 전문연구원

051-797-4792, ksa@kmi.re.kr

Traxens, 스마트 컨테이너 데이터 교환 위한 표준 개발 주도

- 프랑스의 공급망 솔루션 개발 업체인 Traxens는 유엔전자거래 및 무역촉진센터(UN/CEFACT)¹⁾에서 만든 스마트 컨테이너(smart container)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개발을 주도함
 - 표준화된 솔루션은 디지털화를 발전시키고 스마트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많은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여 해운시장을 공통된 표준에 따라 통합함으로써 보다 나은 스마트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스마트 컨테이너는 기존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일관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하기 어렵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표준이 없는 실정임
- 2017년 10월 시작된 'Smart Containers BRS' 프로젝트는 데이터 교환을 위한 명확한 국제적 표준을 제공해 다른 시스템에서의 활용과 통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BRS(Business Requirements Specifications)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컨테이너 활용을 용이하게 함
 - Traxens에 따르면, 이러한 데이터들은 한번 생성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플랫폼, 각종 시스템 간에 공유가 가능해 데이터 교환, 알람 발생 및 작업흐름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등의 기능이 향상된 것임
- 또한 개발된 새로운 표준은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의 기초가 되어 공급망의 모든 측면에 도입이 가능함
 - 블록체인, 빅데이터, 데이터 파이프라인 등 다른 혁신 기술과 결합해 해운시장의 거래과정에서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음. 단,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다 더 명확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Traxens는 스마트 컨테이너의 표준화된 데이터는 공급망에서 실제 사용되는 메시지와 동기화되어 의사 결정 속도와 정확성, 물류의 전반적인 기능과 가시성 향상,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올해 5월 Maersk는 Traxens의 주요 주주 및 고객으로 Traxens에 자본투자 뿐만 아니라 50,000 개의 Traxens 디바이스를 발주하기도 함
 - Traxens의 솔루션은 비용절감과 거래환경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멀티모달 공급망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해 고객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있음
 - CMA CGM, MSC 등 주요 글로벌 해운기업 역시 Traxens에 투자 및 고객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음

■ 참고자료 : World Maritime News 참조, 2019.10.7. 검색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1) UN/CEFACT(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는 유엔경제 및 사회 협의회 내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정부간 기구임.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UN이 지원하는 표준화 조직임

핀란드 항만, 선박 자동 계류 시스템 추가 발주

- 핀란드 헬싱키항은 안전과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 자동 계류 시스템을 추가 발주함
 - 헬싱키 항만은 Carvotec사에 선박 자동 계류 시스템을 추가 발주했으며 이를 통해 선박 계류 및 해제에 걸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연료 소비를 크게 줄여 지역 대기의 청정도를 높임
 - Carvotec사는 헬싱키 항만의 서쪽 터미널에 'multi-unit MoorMaster system'을 공급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선박 계류에 필요한 기존 인력의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Nevanlinna 여객 서비스 담당 부사장은 "헬싱키 항만은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통해 항만 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고 밝힘

핀란드 헬싱키 항만에 설치된 Cavotec사의 자동 계류 시스템



자료 : <https://www.greenport.com/news101/energy-and-technology/port-gives-automated-mooring-eco-credit>
(2019.10.14. 검색)

- 컨테이너선박 계류에 필요한 시스템 연구개발이 시급함
 - 현재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와 함께 자동 계류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지만 그 범위가 여객선에 국한되어 있음
 - 컨테이너선박의 초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와 학계, 민간기업이 협력해 컨테이너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 자동 계류 시스템 연구개발이 시급함
 -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설비를 개발/도입하고 있지만, 자율운항선박이 도입되고 무인 자동화항만이 이루어졌을 때는 선박 자동 계류 시스템은 필수적이며 해당 시장의 경쟁 역시 치열할 것임

■ 참고자료 : <https://www.greenport.com>, 2019.10.14

김효재 연구원

051-797-4686, hj_kim@kmi.re.kr

동남아 피더선사 익스프레스, 트레이드렌즈 합류 의사 밝혀

- 익스프레스는 동남아 대표 피더선사로, 세계 각지에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함
 - 익스프레스(X-Press Feeder)는 1972년 동남아에서 운영을 시작한 피더선사(Feeder operator)로, 퍼스트 마일(First mile) 및 라스트 마일(Last mile)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함
 - 110대가 넘는 선박을 활용해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중동, 캐리비안, 중앙아메리카, 유럽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 익스프레스는 해상운송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오래전부터 추구해왔음

엑스프레스의 해상운송 서비스 지역



자료 : <https://www.x-pressfeeders.com/Home/About> (2019.10.07.)

- 지난 10월 3일 트레이드렌즈는 익스프레스의 트레이드렌즈 합류 의사를 발표함
 - 트레이드렌즈(TradeLens)는 머스크(Maersk)와 IBM이 개발한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의 디지털 해상 운송 플랫폼으로, 단절 없는 물류 및 안전한 정보공유 생태계를 제공함
 - 세계 상위 6개 선사 중 5개 선사를 포함한 10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이 트레이드렌즈에 합류함
 - 트레이드렌즈가 제공하는 해상운송 플랫폼의 생태계 영역은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원양 컨테이너선사와 피더선사와의 시너지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익스프레스는 트레이드렌즈 합류를 통해 공급사슬의 가시성을 강화하고 물류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s://blog.tradelens.com/news/press-releases/x-press-feeders-joins-tradelens/>, 2019.10.07.

<https://www.x-pressfeeders.com/Home/About>, 2019.10.07.

서정용 전문연구원

051-797-4676, jseo@kmi.re.kr